

95북경세계여성회의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중국 북경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대회는 정치, 인권·성폭력, 여성과 평화, 교육과 여성, 여성과 사회개발, 여성과 환경, 경제세계화, 문화예술, 개성미디어, 종교, 여성장애인, 여성건강분과 등 총 12개 분과로 나눠 열린 논의가 이뤄졌으며 본회의(GO)에서는 행동강령들을 채택했다.

향후 10년동안의 세계여성운동의 지표가 될 행동강령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인정, 여성의 발전권 및 의사결정권인정, 여성의 인권, 여성 성폭력에 포함, 전쟁중 성폭력 처벌 등 총 1

이번 회의는 국제적, 혹은 나라별 이슈가 총집합해 '여성의 문제는 곧 인권문제'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켰으며, 또 반핵과 환경운동 등 인류에 대한 마지막 도전해결기 위한 여성들의 강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밖에 여성의 정치세력화, 경제세력화 등도 이번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였다.

한편 세계여성회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세계평화, 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난 75년 제1차 멕시코시티회의를 시작으로, 제2차 코펜하겐회의, 제3차 나이로비회의 이어 이번 북경회의가 4번째다.

NGO포럼 환경분과위 참가한 성덕 스님

“여성불자 환경운동 ‘정치교실’ 열어 이끌 계획”

이번 북경세계여성회의의 전 세계 5만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중 한국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비구니스님인 성덕스님(불교지원봉사연합회 회장)이 NGO(비정부기구)포럼 환경분과에 참가했다.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우리사회 곳곳을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한 것이 바로 북경세계여성회의의 입니” 성덕스님은 강령을 여성위원회 대표로 참가, 환경분과에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결합 등 각종 포럼과 분과토의에 참여했다.

성덕스님은 “이제 불교도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해 불교인이 바로 사회지도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교가 참가 하지 않은채 기독교와 천주교의 주도아래 회의가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스님은 전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수녀들이 한복 차림을 입고,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각종 워크숍에 참가했으나 불교계는 성덕스님만이 환경분과에 유일하게 참가해 겨우 체면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성덕스님은 세계여성의 흐름을 읽고 21세기 포교 대안을 마련, 대응한다는 점에서 ‘불교도 사회에 눈을 뜨고 종교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

“차별없는 권리를 찾자”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채택

백 50페이지에 달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용어인 생물학적인 의미가 강한 섹스(Sex)대신 사회적 의미가 함축된 젠더(Gender)로 통일하게된 것은 여성의 힘을 보여준 결과다.

전세계 1백85개국 5만여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 우리나라는 영부인 손명순 여사를 명예수석대표로 본회의와 NGO포럼에 유례가 없는 5백여명이 참석,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96개 단위로 결성된 한국여성 NGO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성희롱 문제, 환경문제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국제여론에 제기했고 20여개의 워크숍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 회의는 유엔 회원국의 공식 정부대표단과 유엔관련기구, 그리고 각나라의 NGO대표들이 참석한다.



여성보호 네트워크 형성 등 선진국 활동역량 ‘인상적’

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의 첫자임을 위해 성덕스님은 여성불자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내년 봄 불교지원봉사연합회에 정치교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불교계 여성단체들도 더욱 분발, 불교의 세계화를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게 성덕스님의 견해다.

◇ NGO 환경분과에 참가한 성덕스님은 덴마크 등 외국 참가자들과 다양한 토의를 가졌다. (맨뒤 중앙이 성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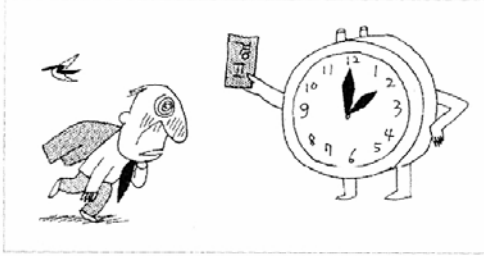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병이란 이미 나버리면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건강했던 똑같은 상태의 건강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병은

최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조사한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준다. 이 조사대상자는 병원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지 않았던 사람(1,112,72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더욱 충격을 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조사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62.8%만이

만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불건강하다는 뜻이다.

물론 질병을 앓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밝혀진 원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도 있었고 외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신체내부의 내



틀도 아니고 장기화 한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을 병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가령 성인병이라고 흔히 부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병들도 오랜 개인의 식생활습관이나 운동습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성격적으로 성인병을 훨씬 잘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면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바른 생활습관을 갖자.

이런 후 건강칼럼 <34> 건강과신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치료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갖는 우매한 점이 바로 병이 나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안다는 데 있다.

불규칙적 생활습관 신체·정신병 유발

분비의 이상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질병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조차도 더 깊은 원인을 따져 보면 그런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심리적인 조건을 더 먼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은 감염균이 뚜렷한 것이라도 왜 어떤 사람은 감염

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될까를 생각하면 해답은 나온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습관과 질병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생활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이 바르지 못한 습관에 몸이나 마음이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된다.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이 하루이

만 화

법 구 경

* 폭력의 장 *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는

이 할 원

성불재활원 신축 부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안돼진 뭐가 안돼! 집값 떨어져 동네 망하는 꼴 볼려고 이따위를 여기 지으려는 거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재활원 우리 동네 둘 수 없다

지... 진정 하십시오

아이들 교육에 해가 된다는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리고 여긴 500년나 떨어진 곳이고요

잔소리 마라! 절대 안된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지는 못할망정 이러시는건 아닙니다

장애인 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날이 일어나는 사고는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 이라고 해도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 다음 열가지 중에서 어느 값을 받게 되리라

지금 우리보고 악담하는거야?

앗! 스님

여기다 재활원 세울 꿈도 꾸지 마! 알겠어!

전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보기 흉한 노쇠 육체적인 상처와 무서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착란

재수 없으려니까 별게 다 동네에 기어들어와서....

따끔한 맛을 보여줬으니 포기 할거예요

바리리리

앗! 우리 동팔이가 교통사고...

왕권으로부터 입는 제약 지독한 모함 친족의 멸망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만

두 다리를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중상입니다

앗!

우... 우리 동팔이가...

혹은 불이 그의 집을 태우니 이것이 열가지 값중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같이 죽은 다음 저옥으로 떨어진다

아... 안돼... 내 아들이 버... 병신...

어모!

응급실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버락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범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은 인상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무매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범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소 라즈니쉬! 그는 감초가 무성한 범구경이라는 반을 완전히 갖아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범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전처럼 맑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강동이 우리를 인도한다.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죽마는 영혼만이 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고된이 없이 삶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카는 의식과 안락한 삶의 태도에서 어떤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나나 바이라바 타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원역본!

탄트라비전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연희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마 조 임

MATZU JOSHU RINZAI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문 / 각권 값 5,000원

라이프 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7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